



부산여대학보

THE BUSAN WOMEN'S COLLEGE PRESS

성실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예절바른 사람

제 242 호 2020년 6월 22일 (월)

■ 발행인 정영우 ■ 주간 김성희 ■ 주소 부산광역시 진구 진남로 506(양정동 74) ■ 홈페이지 <http://www.bwc.ac.kr> ■ 전화 051)850-3296(FAX 겸용) ■ 인쇄 국제신문



싱그러운 신록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지면소개

2·3·4·5
학교홍보

6
학교소식

7
학생칼럼

8·9
교수칼럼

10·11·12
학생칼럼



발열 37.5도 이상



1. VISION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성 대학

2. 교육목표

인간존중과 감성능력을 발휘하는 리더	전문지식과 기술, 현장실무 능력을 전문직업인	봉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 품성,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
---------------------	--------------------------	----------------------------------	---------------------------------------

3. 대학소개

우리대학의 강점인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휴먼케어서비스분야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는 1969년 개교 이래 50여년간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 온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유일의 여자대학으로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도 및 예절교육을 통한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국제화·정보화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전문 인력을 양성해 온 사립전문대학교입니다.
 학교법인 혜화학원의 설립이념인 「충효정신」과 「예의범절의 근본인 다도정신」을 교육이념으로 하여 창의, 성실, 예절의 덕목을 바탕으로, 창의적 직무수행 능력과 인간적인 자질을 갖춘 여성전문직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재상으로는 바른인성인재, 창의도전인재, 감성소통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설립당시 가정과, 의상과, 비서실무과, 생활미술과 등 4개 학과로 시작해 현재에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에서 1개 계열 3개 전공과 15개 학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수업연한이 2년제 1개 계열, 10개 학과, 3년제 4개 학과, 4년제 1개 학과로 구성되어 2,3년제 전문학사 학위부터 4년제 학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2,3,4년제 전문대학교입니다.

4. 우리대학 특색

- 교육부 지정 혁신전문대학 선정
- 교육부 지정 후진학선도형(3유형)사업 선정
- 고등직업교육 평가인증원 실시, 고등직업교육품질 인증대학(2022년까지)
-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LINC+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선정대학(2021년까지)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정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2021년까지)
-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2021년까지)
- 2019년 부산전략사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3년 연속 수행기관 선정)
- 2018, 2019 대한민국브랜드 명예의전당 수상, 휴먼케어서비스 특성화 부문
-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상담관리 및 진로관리를 통하여 취업지원 관리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1

학과안내

학과	소개 / 자격증 / 취업분야 또는 회사	
유아교육과 (3년제)	대학부속기관인 부속유치원, 해화유치원, 해화어린이집 및 부산시·내외의 유명 유치원과의 산학협력과 선진 실습시설을 통한 현장중심교육으로 최고의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 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등/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 학습교재 개발회사, 유아교육 관련 잡지사, 연구소, 아동 상담 및 치료기관, 본 대학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원 진학 등	
아동보육과	현장 중심의 실용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우수한 교수진, 보육실습실·기자재 구비/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부), 동화구연지도사 2급, 유아체육지도사 1급, 풍선아트지도사 2급 등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교사, 아동상담센터, 아동복지시설 상담사 및 교사 등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3년제)	전국 유일의 아동체육교사, 무용교사와 보육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부산 최다 여성스포츠·무용 지도자 배출과 각종 대회에서 부산시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다수 입상/ 보육교사 2급(보건복지부), 유소년 체육전문지도사 1급, 유아무용지도사/ 어린이집 교사, 초중등학교 스포츠·무용강사, 학교스포츠클럽 교사, YMCA 아기스포츠단, 유아체능단 교사, 보건소 및 재활병원 운동처방사, 재활운동지도사 등	
항공운항과 (3년제)	아시아나항공, LCC항공사 등 메이저항공사의 승무원체험연수 참가 및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통한 글로벌 항공서비스인 양성 / 항공예약발권사무원, 서비스컨설턴트, CS leaders, SMAT 등 / 객실승무원, 항공예약발권사무원, 공항 지상직 요원, 공항보안검색요원, 항공사콜센터 등	
호텔경영과	40여년 전통의 호텔리어 양성 학과,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풍부한 특급호텔 실무경력을 갖춘 교수진 확보 /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조주기능사, 소믈리에 1·2급 등 / 관광호텔, 해외호텔, 복합리조트, 테마파크, 컨벤션사업체, 크루즈사업체, 외식사업체 등	
바리스타과	전국 최초로 개설된 국제적인 수준의 바리스타 양성 학과 및 전국 최다 현장실무중심의 커피실무교과목 개설 운영 / 바리스타 1·2급, 조주기능사, 소믈리에 1·2급 커피지도사, 티소믈리에 등 / 커피전문점, 로스터리카페, 커피관련회사의 바리스타, 커피아카데미, 커피교육기관의 커피교육강사 등	
호텔외식조리과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 조리 관련학과 2년제 중 최초 집중수업 도입/ 조리실기교사, 조리기능사, 조리 산업기사 등 /전국 최고의 특급호텔, 전문레스토랑, 패밀리레스토랑 조리사·단체급식업체, 컨벤션센터, 관광레저 관련 산업체·특성화고등학교 조리실기교사·요리전문학원 창업 및 강사 등	
호텔제과제빵과	부산 최초로 설립된 제과·제빵 전공 학과이며, NCS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및 뚜레주르 외 12개 협약산업체와 사회맞춤형 학과 '르뽁아르티장' 반을 운영/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케이크 디자이너, 양식조리사, 한식조리사, 조리산업기사 등 / 호텔제과부서, 제과제빵교육기관 실기교사, 카페베이커리, 프랜차이즈점, 개인제과점, 외식뷔페제과부 등	
간호학과 (4년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학생관리를 통해 국가, 지역사회,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의료인 양성/ 간호사면허증, 보건교육사 3급 등 /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간호직·보건직·소방직 등의 공무원, 산업체 보건관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국·호주·캐나다 등의 해외취업 등	
치위생과 (3년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치과위생사 면허증 취득 지원/치과위생사면허증/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 병·의원, 보건직공무원, 의무부서관, 학교 구강보건실, 구강보건 관련 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체 구강보건실 등	
안경광학과	부산최초의 안경광학과로 최단기 보건복지부 안경사 면허취득 이후 안경원, 렌즈샵 창업 및 취업, 안과검사사로 취업/ 안경사 면허 (보건복지부),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등/ 안경원, 렌즈샵 창업 및 취업, 안과 병원 및 안과의원 검안실, 콘택트렌즈 제조 및 유통 업체, 안경렌즈·안경테 제조 및 유통업체, 안광학기기 업체 등	
보건행정과	평생 직업을 위한 현장중심의 여성 보건의료전문인 양성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성화, 주문식 교육지원 학과 선정을 이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병원행정사, 의료서비스 코디네이터, 보험심사평가사, 건강보험사, 건강보험 청구관리사, 보건교육사 3급, 간호조무사, 다도사범3급 등/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 원무과, 보험심사과, 보건직공무원, 고객지원과, 병원코디네이터, 건강검진실 등/ 간호학과 편입 다수	
미용과	미용실기교사자격증 발급(부산유일)기관, 헤어전공, 메이크업스타일링전공, 피부·네일 전공 중 선택 사회맞춤형 LINC+사업 참여 학과/ 미용사면허증, 미용실기교사자격증, 직업훈련교사 등 / 피부미용사, 네일미용사, 메이크업미용사/ 헤어디자이너, 헤어숍경영, 두피모발정보관리사, 피부관리사, 피부숍 경영, 병원코디네이터, 메이크업아티스트, 웨딩·메이크업스튜디오 경영, 네일아티스트, 네일숍경영 등	
반려동물과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과 반려동물산업 현장에 적합한 동물보건사, 펫시터 양성(수의테크니션, 동물간호복지사)/최신미러형 실습실 구축, 부산청년일자리 정책에 부합, 부산시 언론기관과 다양한 행사 기획/ 동물보건사 : 동물병원, 반려동물산업체,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동물보호관련), 해외취업 등	
사회복지계열	청소년가족복지전공	부산·경남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의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취득 / 현장체험활동, 특강, 멘토링 등 산업체전문가 참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외 사회복지공무원, 4년제 대학 편입 등
	사회복지상담전공	부산지역 최초로 사회복지상담 관련학과 설립 및 전문상담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지도사 양성 / 다수의 사회복지기관과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및 현장실습 / 전공동아리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활성화 / 사회복지사 2급, 상담심리지도사 2급 등/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종 상담소, 그 외 사회복지공무원, 4년제 대학 편입 등
	사회복지경영전공 (야간)	전국최초 복지경영전공학과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복지경영전문가 과정 / 사회복지사 2급, 노인심리상담 등 / 복지기관 설립, 장기요양기관 설립운영, 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 청소년시설, 공무원 등
문헌정보과(야간)	48년 전통의 문헌정보전공 / 준사서, 보육교사 2급, 독서지도사 등 /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사서 대학도서관의 사서 사서직공무원, 공공도서관의 사서, 연구소 신문사 방송국 기업체자료실의사서, 작은 도서관의 사서 및 독서지도사 등	



2 장학금, 기숙사(혜지생활관), 연계편입

1. 신입생 장학금 안내

1) 신입생특별장학금(2020)

특별장학금 종류	대상자격 및 장학혜택
면학격려장학금	1996년 2월 29일 이전 출생자 : 입학금 + 매학기 수업료 20% 졸업 시까지 면제 (간호학과 제외) (단, 직전학기 백분율점수 70점 이상시 지급)
대학졸업자장학금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 입학금 + 수업료 20% 졸업 시까지 면제 (간호학과 제외) (※ 대졸자로서 정원내·외 지원자 모두 해당됨. 단, 직전학기 백분율 점수 70점 이상시 지급)
교수추천장학금	본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자 : 입학금 면제
농어촌학생장학금	'농어촌학생'대상자 : 입학금 면제 (※ 정원외특별전형의 농어촌학생 지원 자격 해당자로서 정원내·외 지원자 모두 해당됩니다.)
자매고교장학금	- 본 대학과 자매고교 결연을 맺은 고교 출신자 : 입학금 면제 - 산,관,학 협동체결 학원출신자 : 입학금 면제 (이수확인서 또는 원서상단 확인도장 필요) - 부산산업학교 1년 이상 과정 이수자 : 입학금 면제 (이수확인서 또는 원서상단 확인도장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자' 대상자 : 입학금 면제 (※ 정원외특별전형의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자 지원 자격 해당자로서 정원내·외 지원자 모두 해당됩니다.)
부산지역인문계고교 장학금	부산지역 인문계 고교 출신자로서 각 학과별 부산지역 인문계 출신자 중 내신 성적 상위 10%이내 해당자 : 입학금면제(※입학 후 장학금 지급 : 4월 예정)
리더십장학금	- 고등학교 총학생회장,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고등학교장 추천자 : 1년간 등록금 전액
학과추천장학금	본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자 : 1학년 1학기 등록금 면제
혁신인재장학금	본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지급
희망인재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은 자

- 주) 1. 신입생 장학금은 중복 지급 불가. 여러 중복항목 중 금액이 높은 항목 1개만 지급됩니다.
 2. 정원외 지원자가 정원내 중복 지원시 정원외 해당 장학금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3. 2021학년도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신입생특별장학금 대상자격 및 장학혜택 등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장학금 문의 : 학생처(☎ 051-850-3015, 3016) 및 학과사무실
- 2) 경진대회장학금 : 본 대학이 주최한 전국여고생관광서비스경진대회, 전국여고생미용경진대회, 전국여중고생댄스경연회의 수상자 : 1학년 1학기 등록금 전액 ~ 150만원 (대상 : 등록금 전액, 금상 : 200만원, 은상 : 180만원, 동상 : 150만원)
- 3) 교내장학금 : 신입생특별장학금, 경진대회장학금,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한마음장학금, 복지장학금, 교육보호대상자 장학금(국가유공자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교직원직계장학금, 혜화학원산하교직원자녀장학금, 교육자녀장학금, 한가족장학금, 다문화가족(외국인)학생장학금, 장애우장학금, 외국어성취장학금, 간부공로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다촌장학금, 아동보육과 백성장학금
- 4) 교외장학금 : 총동창회장학금, 부산은행장학금, 농협중앙회장학금, 한국다도협회장학금, 교수장학금, 저소득층자녀 부산광역시장학금, 농어업인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장학금, 하림장학금(호텔제과제빵과), 부산광역시 안경사회장학금(안경광학과), 치위생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호텔제과제빵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바리스타 산학협력업체장학금, 호텔외식조리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아동미술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보건행정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미용과 산학협력업체 장학금, 유아교육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아동보육과 동문회장학금, 호텔외식조리과 동문회장학금, 사회복지계열 동문회장학금, 미용과 동문회장학금, 국가유공자녀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KRX국민행복재단장학금
- 5)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1유형·2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입학금감축대응지원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6) 2019학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약337만원(총 장학금 약94억9천만원, 2019.4.1. 재학생 2,820명, 2019정보공시 기준)
- 7) 학자금 대출제도 안내 :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 포털사이트(www.kosaf.go.kr) 참조



2. 기숙사(혜지생활관) 안내

- 1) 수용인원 : 600 명
- 2) 수용대상 : 부산시외, 장거리 학생 우선 배정
- 3) 기숙사비 내역
 - 가. 4인실 : 관리비 390,000원(1학기 분)
 - 나. 2인실 : 관리비 590,000원(1학기 분)
- 4) 연락처 : 혜지생활1호관 051-850-3270, 혜지생활2호관 051-850-3253, 혜지생활6호관 051-850-3214

3. 연계편입

계열/학과	4년제 대학교 연계 협약 현황		계열/학과	4년제 대학교 연계 협약 현황	
	대학교명	학과명		대학교명	학과명
유아교육과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호텔경영과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아동보육과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아동스포츠재활 무용과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		동의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제관광경영학전공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동의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동의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산업경영학전공
	동의대학교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동의대학교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 태권도학전공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동아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포츠산업융합학부 사회체육전공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포츠산업융합학부 스포츠산업전공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외식산업경영학전공	
항공운항과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전공	호텔제과제빵과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경영학전공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외식산업경영학전공
	동의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국제관광경영학전공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동의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전공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바리스타과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사회복지계열	동의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사회복지학전공
	동의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산업경영학전공		부산외국어대학교	재활복지학과
문헌정보과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4년제 대학과의 연계편입은 기본적으로 무시험 전형임. 단, 4년제 대학의 연계편입 모집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학과에 따라 연계편입 지원자가 모집인원 한도를 넘을 경우 별도 선발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음

4. 신체장애자 관련 사항

- 1)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시설과 우리 대학교의 설비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완벽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 2) 다음과 같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는 대학 재학 중 실험, 실습 등 수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졸업 후 해당분야 자격취득이 불가능하거나 진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결격 예상 기준
유아교육과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간호학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결격 사유자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
(우리 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주대학교)
와 인얼스커피 산학협력협약체결**



지난 2월 19일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 우리 대학(총장 정영우)과 부산의 대표 커피 브랜드인 인얼스커피(대표 최정훈)가 커피 바리스타 인력 양성을 위한 실용교육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Ⅲ유형(후진학선도형)의 일환으로 부산에서는 우리 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주대학교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에서 추진하였다.

우리 대학의 정영우 총장은 '우수한 커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실용 교육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커피 산업과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가 공동 발전하는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영우 총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



정영우 총장이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하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정영우 총장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부산!"이라는 메시지를 대학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리며 캠페인 참여를 알렸다.

또한, 국민의 안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안정되어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영우 총장은 4월 27일 동주대학교 김영탁 총장에게 희망 캠페인 릴레이를 이어받아, 동의과학대학교 김영도 총장과 동의과학기술대학교 손영우 총장에게 동참을 부탁하였다.

**2019년 제1기 후진학선도형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12일 '2019학년도 제1기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Ⅲ유형(후진학선도형)의 일환으로 부산에서는 우리 대학, 동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의 취업과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티테라피스트 양성과정'을 비롯하여 총 5개의 교육과정을 지난 9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모든 교육은 대학의 첨단화된 실습 시설에서 실습 위주로 실시되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고영미 교육생(2019년도 제1기 티테라피스트 양성과정)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을 열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교육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영우 총장은 수료식에서 '후진학선도형사업의 평생직업 교육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육생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교육이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 및 모든 성인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부산지역교육거점센터의 열린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여대 아동체육무용과 박지영,
전국무용예술제 대상 수상**



아동체육무용과 박지영이 지난 1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무용예술제' 한국 무용 창작 일반(대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박지영 학생은 '담담히 적시고나'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발레의 대표적 작품 중 하나인 지젤 속 여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심리 변화를 한국적인 춤사위로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재해석 한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2019년 취업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제10기 챌린저 취업동아리 대상 『취업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독창적이고 참신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취업의 목적성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자기계발 및 직무능력의 준비 상태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채용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취업동아리 학생들에게 취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진행하게 됐다.

참가한 20개의 출품작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쳐 11개 작품이 본선에 올랐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작 총 5명의 학생들에게 상금과 상장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는 『취업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출품작을 심사하면서 부족한 점을 도출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2020년 경진대회 개최 시에는 전체 학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대면 수업 실시!



우리 대학(총장 정영우)은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론수업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일부 실험실습과목을 중심으로 한정적 대면 수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대학은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교내 유입을 막기 위해 주요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손소독제와 마스크 제공, 외부인의 발열 체크 및 방문 기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정영우 총장은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수업들을 시작으로 등교를 진행하게 되었고, 대학도 최대한의 예방, 방역 통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 관련 질병들

코로나19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잠복기는 2일~14일로, 잠복기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초기 증상이 나타나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상을 느끼는 환자들이 대다수이며 가래, 근육통, 두통, 객혈, 구역질, 설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다. 특히 코막힘 증상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막힘이나 콧물 등은 코, 편도, 인두, 후두에서 일어나는 상기도(상부 호흡기관)의 증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가 시작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날씨가 춥다 가 따뜻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일교차 탓 감기 환자까지 맞물리면서

코로나19 감염인지, 단순 감기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만약 몸이 발열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설치된 선별 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 설치됐다. 보건당국은 단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의 경우 선별 진료소를 찾은 40%는 큰 증상 없이 불안감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정된 의료 인력이 단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검사하느라 정작 조기 진단해야 할 감염자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감염자가 아닌 경우라도 병원 내 선별 진료소를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감염자로부터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역감염'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선별 진료소를 바로 찾기도는 증상을 잘 따져보며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일단 발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독감 증세가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고 2일 정도는 혼자 자가격리 상태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감기는 콧물이나 재채기, 기침 등의 상부 호흡기관에서 증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후 2-5일이 지나면 자연 회복된다. 과거 감기를 앓았을

때와 비교해 비슷한 증상인 경우에는 감기약을 복용하고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다. 코로나19의 경우 감기와 달리 폐와 같은 하부 호흡기관에 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열이나 기침 가래, 마른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만약 끈적하고 노란색의 가래가 나오거나 피가 묻어 나오는 가래가 나올 경우에는 폐렴 증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무턱대고 의료기관을 찾아가서는 안된다. 의심 환자가 확진자로 확인될 경우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도 폐쇄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일단 보건소나 1339, 120콜센터 등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안내받은 다음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증상을 확인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고 없이 병원 응급실에 가서는 안된다. 다른 환자들의 감염이 집단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신고 전화 후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내 간간이나 손잡이 등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걱정되는 사실은 최근에 발병하는 감염병이 주로 바이러스

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유행했던 감염병은 박테리아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후사병, 콜레라, 결핵 등이 박테리아가 원인인 경우이다. 하지만 최근 유행한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같은 호흡기 질병은 물론이고 에이즈, 간염 같은 질병도 모두 바이러스로 인해 생겼다.

또, 바이러스는 계절을 탄다는 말이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보통 겨울에 유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입자가 더 작아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더 멀리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체온이 1도 낮아질 때 면역력은 30%나 떨어지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반면 여름이 되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약해지고 사람의 면역력은 높아지므로, 그때는 바이러스가 큰 힘을 쓰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여름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평소 예방법과 손 씻기 등을 잘 지켜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코로나19에 대해 조사하며 글을 쓰면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산여자대학교 교직원, 학생들 모두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

김경주 기자



부산여자대학교의 온라인 교육 첫걸음...



이상준 교수
(학사지원처장)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본 대학은 철저한 준비과정으로 온라인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의 급작스런 결정에 따라 현재 모든 대학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 많은 대학들이 콘텐츠 제작, 접속자 폭주로 인한 서버 다운, 시스템 사용 문제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본 대학은 올해 1학기부터 교수

와 직원, 전문가 중심으로 '구글 기반의 G-Suite(Google G Suite for Education) 연계 수업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구글 G-Suite 서비스는 구글이 교육 기관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부산여자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대학 이메일 계정을 통해 구글 G-Sui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구글 G-Suite 교육용 서비스는 지메일(Gmail), 구글 드라이브(Drive), 캘린더(Calendar) 등 교육과 관련된 구글의 주요 서비스를 모아 놓은 것이며,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메일 주소(학번@bwc.ac.kr)를 지메일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G-Suite 교육용 서비스는 구글 드라이브, 메일, 사진 저장 공간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계속 학교 계정을 이용해 무료로 G-Suite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이므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거나 스마트폰 등 휴대나 접속이 따로 필요 없고 로그인만 하면 내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 기기(Devices)로 접근 및 이용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대학이 이처럼 대학가에서 온라인 수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학생 교수 간 온라인 수업 커뮤니티 활용, 원격수업과 과제물 제출 및 평가, 구글 캘린더를 활용한 시간표 조회, 행아웃(Hangouts), MEET를 활용한 실시간 화상강의 등 비대면 수업 방식의 기반을 사전에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은 PC와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한 번에 많은 학생과 화상채팅을 할 수 있어 쌍방향 수업이 원활하다. 구글 G-Suite 이용 시 용량 제한이 없어 다채로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 PC에서는 성적 처리까지 가능해 학생 관리가 용이하다.

이는 담당 교수가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은 클래스룸에 들어가 스트리밍으로 동영상 학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과제, 토론, 퀴즈, 채팅, 설문 등으로 수업을 보충할 수도 있으며, 캘린더, 행아웃 등의 구글 주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구글 공식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기기 제약 없이 서비스 이용

이 가능하다.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 알림을 받거나 다른 사람과 일정을 공유할 수 있고 행아웃을 이용하면 화상 채팅, 메시지 발송 등 다른 사람과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다.

본 대학 교직원들의 행정업무에도 구글 G-Suite 서비스를 적용해 나갈 예정에 있으며 미트(Meet)를 통해 온라인 회의를 하거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각종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업무 공백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본 대학은 향후 수업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도 행아웃, MEET를 통해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타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 혁신을 위해 구글 G-Suite를 도입으로 온라인 강의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번 구글 G-Suite 서비스 도입으로 강의 지원과 메일, 웹 드라이브 등 기능별로 분산된 대학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 개별 시스템을 자체 운영하는 것에 비해 대폭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산 속의 사람들 I



신혜영 교수
(유아교육과)

1. 피터 자이한의 예측과 분석의 틀

평범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당선되리라고 생각했었다. "You're Fire!"라고 독하게 자주 외쳐대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걱정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트럼프 등장 이전부터 트럼프 당선은 물론, 미국의 새 행정부 정책을 정확히 적중시킨 국제정세분석전문가 피터자이한(Peter Zeihann, 1973~)은 스스로를 지정학적 전략가(Geopolitical Strategist)라고 밝혔었다. 자이한은 자신의 저서인 "The Accidental Superpower-The Next Generation of American Preeminence and

The Comming Grobal Disorder, 2014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2018년 역)"과 "The Absent Superpower, 2017 (세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2019년 역)"에서 세계정세와 에너지, 시장, 경제동향, 안보의 관련성을 다각적, 다층적으로 분석 예측해 세계적 기업들의 컨설팅과 국가전략 강연을 하는 세계적인 전략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분석의 틀은 지정학 즉, 지리적 여건과 인구통계학이다.

2. 그의 분석의 틀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지리적 여건과 인구통계학은 입시를 포함한 우리대학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자이한은 자신의 분석의 틀이 대중으로 하여금 미래를 바로 보는 눈을 갖게 해 미래에 대처하게끔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그의 분석 틀인 지리적 여건과 인구통계학으로 우리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어 볼 수 있다.

자이한은 불리한 지리적 여건이 기술, 혁신 등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대학이 구사할 기술, 전략과 혁신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로 환치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각 학과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3. 힘겨운 대학, 사멸하는 대학

지난 몇 년간 대학들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질적인 학내 분규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채, 영세함의 나라에 빠져 헤어 나올 가능성이 전무한 대학, 과도한 욕심으로 교육을 도구화한 재단과 구성원간의 끝없는 분규가 결국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나락으로 떨어진 대학,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자신했던 모 대학은 교통 여건이 개선되었건만 여러 악재로 사멸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염려해 왔던 학령인구 절벽 현상과 대학 자체의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 대학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첫째, 그 대학의 모 학과 교수들은 편을 나누어 끊임없이 싸웠다. 족히 30년 이상을 싸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모든 강사들과 학생들까지 줄을 세웠던 그 싸움은 한 사람이 학교를 그만두고서야 끝났다. 학교를 그만 두는 이는 조직에 축복은커녕 독설과 환을 품었으며, 남은 자는 비로서 승리를 확신했는지는 몰라도 대학이라는 배는 가라앉고 있었다.

둘째, 별스럽지도 않은 연구실적 마다

300~400만원씩 받는다면 엄청나게 자랑하던 것이 생각난다. 그 돈이 지금처럼 대학이 어려울 때, 대학의 문제 해결적 시드 머니가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것이다.

셋째, 서울에서 총장을 모셔와 임기를 마치면 미련 없이 가버렸다. 외부영입 총장은 대학의 상황을 미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당시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외부영입 총장이 보장된 임기를 다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일이 몇 번 반복되더니, 중국에는 내부의 자리다툼으로 이어졌다.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을 초빙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만, 최대의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과 대학은 다르다. 목적성 측면에서 기업에 비해 대학은 과잉이 일정할 수밖에 없기에 불요불급한 것은 무섭게 아껴야 하고, 대학의 핵심미래에 대한 투자에는 과감해야 한다. 멸망 지경에 이른 대학들의 공통점은 대학의 미래상황 예측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목표의 부재, 분규, 막연한 현실 인식과 수동적, 부정적인 조직 문화이다.

-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번에 지정학을 창조한 대학의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우산속의 사람들이다 -

사랑하는 우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



정영우 총장

우리 대학은 1969년 고등교육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여성 인재를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남 유일의 여성교육기관으로 성실하고, 창의적이며, 예의 바른 인재를 길러내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창의적 직무수행 능력과 인간적인 자질을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장 교육, 취업중심의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회 맞춤형 학과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3유형: 후진혁신도형)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 학생들의 개인적인 능력 향상 뿐 아니라 우리 대학의 경쟁력도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는 현상이 되고 있다.

재학생 여러분!

우리 대학 교직원들은 2020학번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학업과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란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모든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재난을 넘어서 세계 재난이 된 이 시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코로나19 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적극적 대응수칙 실천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길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권고사항인 개강 연기, 집단 행사 자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다.

재학생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학생활과 학업에 이미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학과와 교수님들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 잘 대처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2020학번 신입생들은 입학식, 대학생활과 학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교수님조차 만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기대하였던 즐거운 대학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대학생활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매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우리 대학은 계속되는 대면 수업 연기로 인해 학사일정과 학교 일정을 조정하고,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한국 전문대학교육 협의회와 권고사항에 따른 안전한 대처를 위해서 학교 관련 부처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적 대면 수업을 실시하며, 모든 이론수업은 원격강의로 실시하고, 원격수업으

로 대체하기 어려운 실기 교과목과 교내 시설, 장비, 라이선스 등을 활용해야 하는 전공 관련 실험 실습 교과목을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실시한다.

학생 여러분들은 대학과 학과의 전달사항을 잘 숙지하여서 학습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로 학습의 결원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

학교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발열 체크 준비, 전체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학교 전체 건물 방역 실시(강의실, 실습실, 기숙사, 학생식당 등), 통학버스의 주기적 소독 실시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면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교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학 재학생들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잘 인지하고 실천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와 학과에 긴밀하게 연락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이번 학기에 미처 실시하지 못한 프로그램 및 행사들은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코로나 종식 후 면대면 수업이 가능한 이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의 고귀한 가치들을 개발하여 유능한 전문인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간은 인과관계의 필연성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삶의 주체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는 말했다. 자기실현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본질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실현을 위한 자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합리성으로 보고, 합리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때 인간의 궁극 목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이다.

우리 대학은 실무교육뿐 아니라 다도교육 과정과 인성스쿨을 통해 인간적인 자질까지 겸비한 교양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는 지식인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 삶의 주체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실현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이 위기를 잘 헤쳐나아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대학에서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통하여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로 새로운 환경을 담대히 개척해 실력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란다.

스페셜티 커피를 다 함께



박보근 교수
(바리스타과)

바야흐로 커피의 전성시대가 왔다.

특히, 2019년(World Barista Championship)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에서 전주연(모모스커피이사)씨가 챔피언으로 탄생하여 부산은 더더욱 커피의 열기가 대단하다. 부산일보에서는 낭만 카페 35 곳을 선정하고 발표를 하였다. 현재 부산에서는 2개의 대학에서 바리스타과를 개

설하여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있다.

고품질 커피인 '스페셜티 커피'의 조건은 확실한 품질과 돋보이는 개성이다. 커피 생두의 등급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생산국 측이 커피를 수출하는 데 독자적으로 세운 규격에 맞는 등급과 소비국 측이 커피의 맛, 향미를 중시하여 평가하는 보다 객관적인 등급이다. 생산국들은 생두의 크기로 등급을 분류하는 스크린 사이즈나 생두 300그램 속에 함유된 결점두의 수에 의한 등급, 산지의 표고에 의한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소비국 측은 1982년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가 설립되면서 소비국 측의 등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1986년 국제커피기구에서 컵테스트의 기초 기준을 완성하였고 2004년 SCAA에서 스페셜 커피를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 새로운 컵테스트를 만들었다. 생두 350g 중 규정을 넘는 결점두가 섞여 있지 않고, 수입 시점에서 생두 수분

치가 워시드 정제로 10~12%, 내추럴 정제로 10~13%이고, 이취가 나지 않고, 5%가 넘는 사이즈의 차이가 없고, 앞의 내용 네 가지를 만족시키고 SCAA의 컵테스트 현식에 기초한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받은 것을 스페셜티 커피로 정의한다. 스페셜티 커피의 등장으로 커피의 소비자들과 생산자의 거리는 가까워졌고 커피의 생산

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었다. 특히, 커피 생산도 수확량보다 맛(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유명한 게이샤 품종이 있다. 그중에서도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가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스페셜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싶다.



따뜻한 정으로 아픈 역사를 바꿀 수 없다.

- 전라남도 소록도 봉사 활동에서, 우리는 -

간호학과 서아영

유독 민족의 한을 많이 지니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위안부나 군함도와 같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들 뒤에 가려져 있던 소록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 나는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또 다른 민족의 한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아픔을 위로하며 다시 한번 그들의 손을 잡고자 진지하게 글을 써보려 한다. 그러나 이 글을 읽을 독자들 또한 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9년 12월 20일 AM 8:00. 16명의 간호 학생들과 두 분의 교수님이 분주하게 달려갔던 전라남도의 작은 섬, 작은 시읍을 닮아 붙여진 그 이름, 우리는 소록도에 도착했다.

전원 하차 후 학생들은 정해진 계획에 맞춰 숙소로 향했고, 안내받은 숙소에서 각자의 짐을 풀었다. 그렇게 우리의 소록도 봉사활동은 시작되었다.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한 첫째 날. 봉사 활동 관계자분께선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어떤 배경과 역사, 아픔을 가졌는지, 한센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선 안될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몇 개의 병동으로 소수의 인원이 나뉘었다. 병동에 들어 환자분들께 천천히 인사를 드렸다. 아이고, 우리 새 학생들이 왔구나. 착한 학생들, 그래, 잘 왔다. 잘 부탁한다' 아이 같은 웃음소리를 지니신 환자분들과 마주하고 나니 지금까지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알 수 없는 용기가 몸에서 맴도는 듯했다. 때 마침 환자분들의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고, 환자들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춘 밥이 배식되었다. 혼자 식사하기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봉사자들이 조금씩 도와드리기도 했다. 한센병이 신경계를 자극하는 병인만큼, 그 후유증으로 인해 환자분들의 다수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절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듯 혼자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도움을 거부하셨다. 그러곤 자신보다 더 식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라시며 많은 환자들이 자신들의 식사를 끝까지 마무리하셨다.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가 끝난 후 날이 저물어 학생들은 숙소로 돌아가 오늘 하루를 되새기며 일지를 작성했다. 정신없이 긴장한 하루와 낯선 환경 탓인지, 일지를 작성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지쳐 눈도 뜨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보람찬 하루의 느낌은 그저 나쁘지만은 않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힘드신 환자분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게 와닿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내보이

는 환자분들의 환한 미소는 남은 3일의 정성스러운 봉사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이튿날 새벽 4시.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차운지, 깜깜한 그 시간에도 비몽사몽 한 모든 친구들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일찍 식사하시는 습관이 되어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관계자들은 새벽부터 밥을 준비하고, 그 밥이 도착하기 전까지 밝은 미소와 함께 환자분들의 식사 준비를 돕는 일로 이튿날 봉사를 시작했다. 아직 잠이 덜 깬 우리와 달리 어르신들은 좋은 아침이라며 우릴 반겨주셨다. 식사가 병동에 도착하고 전날과 같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어르신들은 나중에 보자하시며 다시 좋은 꿈을 위해 잠자리에 드셨다. 새벽 봉사가 마무리되면 봉사자들도 식사를 하러 갔는데 20년 인생, 새벽 5시에 아침을 먹기엔 또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식사를 마치면 숙소로 돌아가 하지 못했던 아침 준비나 개인 활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 탓인가 피곤한 몸을 달래고자 잠을 다시 청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갔고, 눈을 떠 시계를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있었다. 점심시간도 여전히 어르신분들과 식사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지나갔다. 식사가 마무리되면 식사를 다 하신 어르신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다. 그중 조금 더 인상 깊게 남으신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은 한센병의 후유증으로 두 손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셨고, 다리도 혼자 가눌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겨우 이동해야 하는 분이셨다. 심지어 눈도 멀어 앞도 전혀 볼 수 없으셨다. 앞을 볼 수 없으셔서 항상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도 진지하게 '거기 아직 내 얘기 듣고 있나?', '거기 아직 사람 있나?' 물어보셨고, 그럴 때마다 네 할아버지, 저희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하면 그제서야 다시 아이 같은 해맑은 웃음을 보이시며 '아하! 있구나~ 있어~' 하시며 또 난센스나 우리가 웃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소록도 어르신분들과 깊은 정이 들어갔다. 어릴 적부터 요양 병원에 봉사 활동을 자주 다닌 유경험자로서, 나에게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 병원이나 요양 병원은 그다지 화목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소록도 병원의 어르신들은 우리만큼이나, 소녀 소년들같이 밝고 웃음이 많으셨다. 그덕인지 병동은 항상 따뜻했고, 또 부드러웠다.

삼 일째 되는 날, 새벽 봉사 후 소록도를 둘러보기 위해 걸음을 나섰다. 소록도 섬 안에는 한센병 환자들의 옛 아픈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어내어 있었다. 소록도는 1917년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여, 1941년 6천 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거주했던 섬이다.

한센병 환자들만 격리 시키기 위해 일제 강점기에 그들을 소록도에 가둬놓았다. 그곳에서는 감금 실과 해부실 등 겉모습으로만으로도 아픈 역사가 충분히 예상되는 건물들과 기록들이 전시라도 해놓듯이 남아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사람들은 몇몇의 한센병 환자들을 시켜 같은 한센병 환자들을 못살게 굴었고, 노동착취에 이어 의식주 또한 보장해 주지 않았다. 환자들은 옷도 입지 못한 채 굶었어야 했고, 고된 노동에 동원되지만 그에 해당하는 돈은 부당하게도 받지 못하였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감금실에 가둬두기도 했고, 불법 임상 실험까지 아무렇지 않게 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까지 환자들로부터 떼어내 격리 시키거나 작은 아이들을 공병에 담은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후 교회 외관에 전시해놓곤 했다. 보다 자세하게 소록도를 알고 싶은 독자는 영상 매체를 통해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를 접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아픈 역사 속 아직 내 마음 아픈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계신다. 눈이 멀어 앞을 못 보셨던 할머니이셨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는지, 앞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로 화면을 상상하시며 늘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시다. 할머니는 당시에 주의 사람들로 부터 받은 끔찍한 비판과 시선을 피해 21살에 경상 통영에서 전남 소록도까지 오게 되었고, 세월이 60년도 더 넘었지만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였다고 하소연하셨다. 손가락이 다 절단되고 남은 할머니의 뚱뚱해진 손을 잡으며 얘기했다. '할머니, 많이 속상하셨어요.' 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용도로 밖에 쓰이지 않았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곤 말씀하셨다.

'응, 근데 난 다 괜찮은데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다 버림받았고, 응. 그냥 괴물이었어 난. 괴물 취급받았어. 내가, 그게 제일 힘들었어. 내가 그랬어.'

남들로부터 괴물 취급을 받아왔고, 어찌 보면 스스로를 괴물로 생각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그들은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나 말에 한이 많았을까. 대체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나 목소리가 떨려올까. 그들은, 대체 얼마나 아팠길래 아이같이 해맑은 웃음에서 눈물을 보였을까. 그저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었다. 과연 끝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짧았던 시간은 사라지듯 흘러갔고, 3박 4일 동안 반복되던 일상에는 끝이 있음이 보였다. 옛날 중정이 무섭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닌 듯했다. 할머니, 저희 내일 가요. 지금까지 너무 고맙어요. 저 다음에 또 오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응. 그래. 두유 하나

챙겨가. 아니, 다 챙겨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그리고 다음에 또 와. 꼭' 생각지도 못한 나지막한 할머니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울렸다. 눈물이 흐르는 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핑계 대고 싶다. 소중한 추억은 나만 만들어가는 게 아닌 듯했다. 우리만큼이나 헤어짐이 아쉬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나 많은 이별을 겪고도 이별이 익숙하지 않다는 듯이 떨리지는 고개는 발걸음만 무겁게 만들었다. 소록도를 뒤로 한 채, 아니 우리의 약속을 뒤로한 채 그렇게 우리는 떠났다. 버스 안에선 처음에 느꼈던 설렘과 걱정은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다시 자리 잡혔다. 창밖을 내다보니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말투들이 그려지는 듯했다. 손가락을 다 절단하고 뚱뚱해진 손에 고무줄로 손가락을 꼭꼭 감아야만 식사를 하실 수 있으셨던 할머니,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상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던 할머니, 남편 초코 파이가 있는가 없는가 늘 확인하던 할머니도, 손가락이 없어 뚱뚱해진 손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장기 내기에서 5판을 연승한 할아버지까지, 손발 편하게만 살던 내 생활에도 불만을 가졌던 나를, 고개 숙여 반성하게 만들었던 대단하신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봉사 활동을 마치고 뒤돌아보니 3박 4일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가진 작은 시읍들을 위해, 소록도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통해 소록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독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는 한 가지 제안이 있다. 국립 소록도 병원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자들을 받고 있다. 혹시나 이 글이 독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본다. (인터넷에 '국립소록도병원'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6명의 대견한 학생간호사들, 우리가 다치지 않게, 보다 조심스럽게 다녀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변상희 교수님과 박선영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와 수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 좋은 추억과 함께 환자분들의 위로와 응원 사이에서 함께 한 모든 이들이 보다 사명감 깊은 진정한 간호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글을 마친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많이 힘들었다고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이가 아무리 이제 다 끝났으니 마음 놓으라고 달래 보아도. 그들의 아픈 역사는 바꿀 수 없다. 그들의 역사는 그렇게 갇힌 채 우리가 분주하게 달려갔던 그곳, 전라남도의 작은 섬, 작은 시읍을 닮아 붙여진 그 이름, 그 섬 소록도에 남아있다.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다. 여전히 그렇게.

사후세계를 담고 있는 감동 영화 코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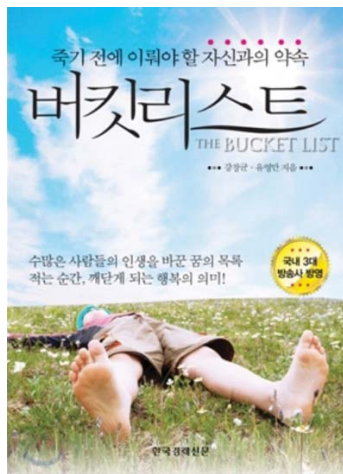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디즈니 영화 “코코”이다. 이 영화의 배경은 멕시코이며, 멕시코의 고유 명절인 “죽은 자의 날”을 소재로 영화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 소년 미구엘은 신발장인 가문에서 태어나 구두를 닦으며 뮤지

션을 꿈꾸는 소년이다. 하지만 미구엘의 가족들은 뮤지션의 길을 결사반대한다. 어느 날 미구엘은 죽은 자의 날에 우연한 사건으로 자신이 동경하던 가수 에르네스토의 기타를 훔치면서 죽은 자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단 위 사진으로만 봤던 친인척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의문의 남자 헌터를 만나게 된다. 이승으로 돌아가려면 조상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기에 자신의 고조할머니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고조할머니 역시 미구엘의 꿈인 뮤지션을 반대해 음악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축복을 주려 하고, 음악을 포기하기 싫었던 미구엘은 제단 위 사진에 없던 음악가인 고조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자 결심하게 되며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줄거리이다. 이 영화에서 완전한 죽음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 속에 죽은 사람이 잊혀져 가면 죽은 사람의 영혼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영화의 설정이 있다. 주인공 미구엘은 죽은 자의 세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단 위에 죽은 조상님들의 사진을 왜 올리고

기려야 하는지 몰랐지만, 죽은 자의 세상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구엘이 고조할아버지를 찾게 되고 가족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고조할아버지의 영혼이 사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승에 돌아가 가족에게 할아버지의 기억을 되새겨 주는 장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우치게 되었던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어서,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죽고 나서의 사후세계 모습에서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보통 사후세계라고 하면 두렵고 슬픈 모습을 그려내지만, 영화 코코에서의 사후세계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밝고 유쾌한 장면들을 그려내서 따뜻하고 감동이 배로 느껴졌다. 영화의 주제곡인 “remember me”도 너무 좋아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찾아 듣게 되었다. 다시금 이 영화가 생각이 나서 보고 싶다면 그때는 가족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가 될 것 같다.

이소민 기자

죽기 전에 이뤄야 할 자신과의 약속 버킷리스트



나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 준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래에 뭐가 되어야 할지 꿈이 없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해 일, 운동, 집 반복 순환이었다.

어느 날 나에게서 큰 인생의 슬럼프가 오게 되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삶의 낙이 없었던 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픔을 겪어 무의미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일도 싫고, 사람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게다가 먹는 것조차 싫어 단식에 이르렀던 나였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인생의 슬럼프 온 나에게 지인이 “은진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한마디와 책 한 권 추천을 해 주었다.

그 책이 바로 버킷리스트라는 책이다.

이 책의 글쓴이의 어머니가 암 투병 중 지나가는 말처럼

“살아보니까 정답이 없더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였고 어머니를 여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는 어머니 말씀이 떠나지 않았고, 한 번도 제대로 하고 싶은 걸 한 적 없는 어머니, 그렇다고 어머니가 특별한 것을 소망한 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다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한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너무 죄스럽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견디지 못하고 숨이 탁 막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뭐라도 해야 했다. 그때 작은 메모지 한 장 눈에 띄어 어른 되어서 처음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청춘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싶어 한다.

이 책의 줄거리는 평범하면서 의욕이 바다까지 떨어져 있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한 주인공 얘기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주인공은 꿈 없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친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보조 정태양이다.

어느 날 데이비드라 호텔 직원을 알게 되었고 데이비드는 태양에게 버킷리스트에 대해 알려준다. 태양은 데이비드의 말에 탐탁지 않아 하지만 데이비드와 대화할 수록 그의 말에 빠져들게 되고 데이비드의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차츰 바꾸어가며 성장하는 내용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삶의 의미가 없다면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인생에 ‘정답’은 없다.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정답’만 있을 뿐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세 가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쓰고, 실천하고, 행복해라

- 미션 플래서 :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채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살아가는 동안 꿈을 이루려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던 학생들이 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의 내용이 아니라 무언가를 꿈꾸는 삶의 자세에 있었다.
- 버킷리스트는 살아가야 할 꿈을 만들어주는 도구이다. 이 노트를 꺼낼 때마다 자신의 꿈을 새롭게 다지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삶의 낙이 없었던 나는 주인공과 같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내 생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무엇인지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1.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2.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따기
3. 꽃꽂이 배우기
4. 네일아트 배우기
5. 많은 행복한 사람 만나 소통하기

이렇게 리스트 작성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고 그 리스트 하나하나 이를 때 마다 나의 인생의 슬럼프 극복과 동시에 나의 꿈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아직 꿈이 없고 본인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게 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이은진 기자

코로나19

손씻기 365란 무엇일까요?

건강을 위한 3가지 약속!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씻어요
올바른 손씻기 6단계



5월부터 실천하세요.

2월부터 큰 재난이었던 코로나19사태가 조금 누그러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생활 속 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꾸준히 실천하자. 코로나19로 인

해 다시 한번 지나온 대표적인 바이러스에 대해 되돌아보며 비교를 해본다. 2000년대에 처음으로 발생했던 사스. 2003년 아시아에서 발생되어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무력

감 등이 있고 이 바이러스는 2-7일의 잠복기를 가진다. 박쥐로부터 감염되었고 중간엔 사향고양이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 이후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배출되는 침방울 또는 이에 오염된 물건으로부터 전염되었다. 치사율은 9.6%에 국내에서는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2012년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 고열(38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잠복기는 2-14일 정도로 박쥐에서 유래된 가능성이 제기되었기도 했지만 정확한 전파 경로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로 전염되었다. 한국 기준으로는 치사율이 20.4%로 꽤 높았다. 186명의 감염자 중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를 포함한 3개의 바이러스에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는 사스와 메르스와는 달리 잠복기에서도 큰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감염자 수가 많고 무증상 감염이라는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이 되기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지침을 잘 따르고 실천하자.

조나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변종인 SARS-CoV-2에 의해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2019년 12월부터 퍼진 범유행전염병이자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2019년 12월 12일 최초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최초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2020년 1월부터 중국에서 외부로 퍼지기 시작해 3월 말까지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와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 28일부터 코로나 19의 전 세계 위험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였으며, 3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범유행전염병임을 선언하였다. 6월 8일경 기준으로 전 세계 총 확진자 수는 7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잠정 치사율은 약 5.8%로, 이전에 많은 사람을 죽인 신종플루 치사율(0.2%)보다 약 29배에 달하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수많은 유명인들이 감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떨쳤다.

코로나 증상으로는 발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독감 증세가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고 2주 정도는 혼자 자가격리 상태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감기는



콧물이나 재채기, 기침 등의 상부 호흡기 관에서 증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후 2-5일이 지나면 자연 회복된다. 코로나19 같은 경우 감기와 달리 폐와 같은 하부 호흡기 관에 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열이나 기침 가래, 마른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만약 끈적하고 노란색의 가래가 나오거나 피가 묻어 나오는 가래가 나올 경우에는 폐렴 증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코로나19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때 무턱대고 의료기관을 찾아서는 안된다. 의심 환자가 확진자로 확인될 경우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

료기관도 폐쇄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일단 보건소나 1339, 120 콜센터 등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과거에 유행했던 감염병은 박테리아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예로 흑사병, 콜레라, 결핵 등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유행한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에이즈, 간염 같은 질병도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 생겼다.

이혜인 기자



편집후기 2020년도 첫 신문인 242호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번 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연되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조금 복잡하게 작업을 해서 그런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렇게 또 하나의 신문을 완성하게 돼서 뿌듯하다. 1학년 기자들과 2학년이 함께 만든 첫 신문이기에 조금 더 정이가는 242호 신문이 될 것 같다. 다음 신문에서는 1학년 신입기자들과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기사로 찾아 뵙고 싶다.

김경주 기자



원고모집 학보사에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수필, 시, 비평문, 기행문, 사진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우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 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처 : 학보사메일 - hakbo@bwc.ac.kr /Tel:051.850.3296

신문 후기 모집 학보사에서는 교내 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신문에 대한 다양한 평가 좋았던 기사,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한 후기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한글문서로 500자 내외의 글을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와 함께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선정된 글에 한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보메일 : hakbo@bwc.ac.kr